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DJ 삶과 가치, 사회 곳곳서 ‘젊은 김대중’ 배출로 이어질 것”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생의 마지막까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하루 앞두고 만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표정은 엄중하면서도 DJ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16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DJ의 삶과 가치는 사회 곳곳에서 ‘젊은 김대중’의 배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DJ 서거 1주년을 맞았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벌써 서거 1주기가 됐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계신다. 소수 야당의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을 맡아 결정의 순간마다 ‘대통령님,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며 대화를 한다.

-DJ 서거 1주년 시대에 던지는 화두가 있다면.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는 양심과 각성하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집권 2년 만에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3대 위기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대통령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은 모두 함께 땀땀 뚫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승리해야 한다.

-DJ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실용주의 노선이 표방돼 ‘협력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열려도 했고 나중에는 굉장한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교동 사저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께서 20~30분간 햇볕정책에 대해 설명하자 ‘각하, 저와 똑같습니다’를 다섯 번이나 말했지만 남북관계를 망치는 것에 대해 분노하셨다. 오죽하면 자서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자가 아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이 없다’라고 적시했겠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많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다. 당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도달해 있었으며 노 대통령과 함께 행동에 나설 준비까지 하셨다. 그 와중에 검찰의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비인간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심장’이라며 망연자실하셨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자체의 슬픔과 충

격도 컸지만 이제 누구와 함께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바로 잡을까 하는 절망감도 컸던 것 같다.

-DJ가 생존해 계신다면 현재의 정국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에 나섰을 것 같다.

▲민주당은 물론 야권의 민주개혁세력들에게 많은 조언을 하셨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는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진정성이 느껴질 때까지 한나라당과 투쟁하고, 새로운 인재 영입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하셨을 것이다.

-민주당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으로 DJ의 빈자리는 더욱 커 보인다.

▲지역 정치권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제 호남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 아니다. 그런 안이한 자세가 민주당의 위기를 초래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제 심기일전해서 오히려 호남 정치권이 가

문을 했을 때 “열린우리당이 대통합을 하려면 분당과 대북송금특검 등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호남 일각에서는 아직도 DJ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

▲가장 슬픈 것이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다. ‘호남에 해 준 것이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다. 국회의원과 있고 도지사, 시장군수도 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왜 모두 대통령이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김대중’을 찾아다니다가 선거가 끝나면 ‘탈 DJ’를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영남당이지만 언제 ‘탈박정희’, ‘탈노태우’, ‘탈김영삼’ 하는 주장을 들어봤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 지도자다. 이제 호남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한 지역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더 이상 누워서 침 뱉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철학없다” 자서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3·1구국선언 같은 공동선언 준비도

“이제 호남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지역 아니다 민주당·민주개혁세력, 국민과 함께 할 큰그림 그려야”

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DJ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 탄생한 것이 노무현 정부다. 복지정책과 인권,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대해 3·1구국선언과 같은 공동선언을 준비하셨을 정도로 정치적 동반자로 여겼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송금특검, 분당 등으로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에 대한 DJ의 입장은.

▲한마디로 산토끼를 불러들리려다 짐토끼까지 내쫓는 격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국민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그 동지와 같은 민주당을 떠나고 빨셈정치로 일부러 짝을 만드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여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동교동 사저를 방

기를 해서는 안 된다.

-DJ가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 운영과 관련,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은.

▲IMF 외환위기는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장려 정책이 왜곡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난 것을 안타까워 하셨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경제 회생을 위한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했다. 또한, 임기 초반 IMF 외환위기 극복 이후 실업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지만 실업과 자영업자의 폐업을 막지 못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

-인동초로 불리우는 DJ 정치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의 길을 걸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력의 핵심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했기에 그 모진 탄압 속에서도 인동초의 꽃이 필 수 있었던 것이다. 늘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만 앞서 가라’, ‘국민을 무시하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하셨다. 저에게도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성공하려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원칙과 철학의 확고한 다리를 딛고 서서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2권짜리로 1400페이지 규모다.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4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께서 직접 구술하시고 서거 직전까지 원고 손질을 하셨다. 최종적인 원고 검토는 이희호 여사께서 하셨다.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은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는 물론 민주, 인권, 평화 정책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MUSICAL
Rock the Repper
록 더 리퍼

10주년 기념 오리지널 캐스팅 리퍼밴드 오케스트라

10월 17일(화) - 21일(토)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1시 30분 / 7시 30분 / 9시 30분 공연

문의: 062-225-0244 / 062-225-0245